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3년 9월 24일
제1967호

주임 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강세원 바오로

연령회장: 홍익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공동체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노나니”(루카 1,46-47)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마태 20, 14-16)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 렘브란트

연중 제25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가해)

제 1 독 서 이사 55,6-9 |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화 답 송 시편 145(144) | ◎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제 2 독 서 필리 1,20ㄷ-24,27ㄱ |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복 음 마태 20,1-16 |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¹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²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³ 그가 또 아홉 시쯤에 나가 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서 있었다. ⁴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삯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⁵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⁶ 그리고 오후 다섯 시쯤에도 나가 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⁷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⁸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⁹ 그리하여 오후 다섯 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¹⁰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¹¹ 그것을 받아 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¹²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꽤약별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¹³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¹⁴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¹⁵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¹⁶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복음 묵상

오늘 복음은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입니다.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으려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선 주인은 일할 사람들을 발견하자 한 데나리온으로 품삯을 합의하고는 그들을 포도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일꾼이 모자랐는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으려 다닙니다. 아마도 수확철이었나 봅니다. 오전 아홉 시, 열두 시, 오후 세 시, 심지어 저녁때가 가까운 다섯 시에도, 주인은 만나는 사람마다 정당한 품삯을 약속하며 자기 포도밭으로 보냅니다. 이제 해가 지고 주인은 관리인을 시켜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려 합니다. 그런데 품삯을 주는 순서가 일꾼들을 불러 모은 순서와는 정반대로 진행됩니다. 오후 다섯 시부터 한 시간가량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모습을 본 나머지 일꾼들은 그보다 더 받으려니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시간, 여섯 시간, 아홉 시간, 심지어 이른 아침부터 열두 시간을 고박 일한 사람에게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어집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밭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포도밭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꾼들을 찾아 헤매듯, 하느님께서도 당신 나라의 구원을 선사할 사람들을 끊임없이 모으려 다니십니다. 그러한 부르심에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하고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 모두는 하느님 나라의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어떤 차등을 두지 않으며 모든 이에게 똑같습니다.

문제는 하느님의 구원 방식이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데도, 우리가 우리의 상식 수준에만 머무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제1독서). 노동 시간에 맞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일꾼들처럼, 오랜 기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자신이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을 혹시 불편해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느님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우리는 모두 ‘한 데나리온’이라는 구원을 약속받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간에 따라 두 데나리온이나 이분의 일 데나리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구원으로 충분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시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모두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정천 사도 요한 신부>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꿈꿉니다. 무기로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

프란치스코 교황이 9월 16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외벽 벽감에 세워진 한국 순교자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성상 축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바티칸을 찾은 한국 순례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교황은 한반도의 평화라는 “꿈”을 “언제나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말했다. “김대건 성인의 모습은 미래가 무기의 폭력적인 힘에 의해 건설되지 않고, 친밀한 온유함에 의해 건설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직한 증거입니다.”

교황은 성인의 모습이 갈등으로 분열된 “한반도와 온 세상을 위한 예언”이라며, 오는 2027년 차기 세계청년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한국 교회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교황은 지난 2014년 8월 13일부터 “아시아의 젊은이여, 일어나라! 순교자의 영광이 너희를 비추고 있다”를 주제로 열린 제6차 아시아 청년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한국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아름다운 증언을 보여줍니다. (...) 여러분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생기를 얻어,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는 젊은 신앙, 뜨거운 신앙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죽어 열매를 맺는 밀알

한국 가톨릭 신자들은 이 소명을 간직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순교한 지 정확히 177년이 지난 오늘도 성인의 삶은 한국 신자들에게 등불이자 길잡이다. “이 위대한 성인의 치열했던 삶을 생각하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2,24)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은 한국 최초의 사제이자 사제 서품을 받으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나이에 순교하신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이 소중한 씨앗이 된 여러분들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편가르지 않고 일치시킵니다

평신도에게서 탄생하고 순교자들의 피로 비옥해진 한국 교회는



▲ 한국 순례자들을 대표해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의장 이용훈 주교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성상을 선물하고 있다.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평신도 사도직으로부터 일어나 순교자들의 피로 기름지게 된 한국 교회는 그 뿌리에서 신앙의 증인들의 한없는 복음적 열성과 평신도 교우들의 역할과 소명을 소중히 대하는 인식을 흡수하며 거듭나게 됩니다.”

평화의 사도

교황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사도”가 되라는 성소를 재발견하라고 당부했다. 교황은 마카오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김 안드레아 성인이 아편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분은 그러한 분쟁의 상황에서도, 모든 이를 만나고 또 모든 이와 대화하고자 하셨던 자신의 열망을 실현하시며 많은 이들을 위한 평화의 씨앗이 되셨습니다.”

“성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도 여정의 길을 걷는 이들의 동반자, 화해의 증인이 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성인의 이러한 모습은 미래가 무기의 폭력적인 힘에 의해 건설되지 않고, 친밀한 온유함에 의해 건설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직한 증거입니다.

저도 언제나 생각하고 기억하는 한반도의 평화라는 꿈을 우리 함께 김 안드레아 성인에게 맡겨드립니다.”

1 2023년 추석맞이 효도 한마당 잔치

- 일시 : 9월 24일(일) 오전 11:30 - 오후 2:30
-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어르신들(안나회, 하상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정성껏 효도 한마당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푸짐한 선물과 장기자랑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 행사 후 셔틀버스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

2 루카회 월례 회의

- 일시 : 9월 24일(일) 오전 11:30 (나눔터)

3 KoC / 요한회 월례 회의

- 효도 한마당 잔치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4 CYO 오케스트라 / 성가대 새 단원 모집

- 학생 미사에 함께 노래하고 연주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 대상 학년 : 3학년 - 12학년 (노래)
7학년 - 12학년 (관현악, 피아노)
- 오디션 : 9월 24일(일) 오후 4:15
하상관 지하 #7 (음악 연습실)
- 자유곡 1곡, scale, sight reading (시창)
- 문의 : 조 스테파니아 (703) 725-3167

5 추석 합동 위령미사

- 일시 : 9월 29일(금) 오후 7:30
- 한가위를 맞아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 부모, 친척, 친지들을 기억하는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됩니다.
- 합동 위령미사 예물을 봉헌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6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 연례 건강 검진의 날

- 일시 : 9월 30일(토) 오전 9시 - 오후 12시
- 장소 : 친교실
- 내용 : 플루 예방접종, 혈액 검사, Medical Counseling, 건강 정보
- 문의 : 박현선 헬스 디렉터 (301) 291-5347

7 결혼 회년 미사 안내

- 결혼 25주년(1998년), 50주년(1973년)이신 분들을 위해 교구에서 기념 미사를 봉헌합니다.
- 일시 : 10월 15일(일) 오후 3시, St. Agnes 성당 (주교님 집전)
- 신청 :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0월 2일(월)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구역 임원 교육

- 일시 : 10월 1일(일) 오전 11:30 (B-1,2)
- 구역 임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9 성 정하상 바오로 성상과 성화 스테인드글라스 기금 모금

- 성 정하상 바오로 성상과 성화 스테인드글라스 기금 모금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본당 목표 금액 : **\$100,000**
- 현재 모금액 : **\$51,253**

10 메디케어(Medicare) 교육 세미나

- 일시 : 10월 1일(일) 10시 미사 후
- 장소 : 친교실 (A 1-2)
- 강사 : 정문기 윌리엄 (703) 598-3316

11 병자 영성체

- 일시 : 10월 6일(금)
- 신청 : 정문기 윌리엄 (703) 598-3316 / 성당 사무실
- 매월 가족이 직접 신청해 주세요.

12 연중 영화 상영

- 일시 : 10월 6일(금) 오후 8시
- 영화 제목 : 파티마의 기적
- 세계 3대 성모 발현지인 포르투갈 파티마의 체험자인 루치아 수녀(소녀 브라가)가 들려주는 성모님 발현 이야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3 토요 신심 기도 및 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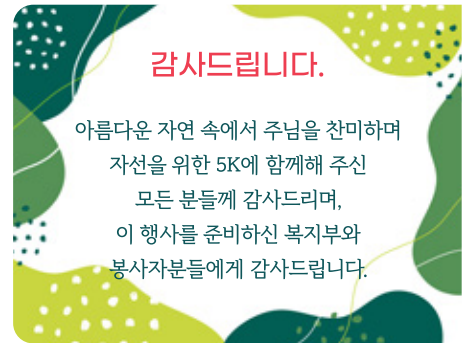
- 일시 : 10월 7일(토) 오전 10:30 (첫 토요 신심 미사)
- 파티마 사도직 기도회 : 오전 9시
- 토요 신심 미사에 함께해 주시기를 청하며, 토요일 새벽 미사는 없습니다.

14 미 동중부 성령 묵상회

- 일시 : 10월 14일(토), 10월 21일(토)
오전 9시 - 오후 6시
- 주제 :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요한 1서 5,8)
- 우리의 삶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성령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시는 신자 분들을 초대합니다.
- 장소 : 성 정 바오로 성당
- 접수 :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참가비 : \$50 (점심 제공)
- 문의 : 박 수산나 (703) 909-2980

15 CYO - Arlington Diocese RALLY

- 일시 : 10월 22일(일), 오후 12시 - 8시
- 장소 : Bishop O'Connell High School
- 신청 : 10월 1일(일)까지 학생 미사 후 하상관 교무실
- 참가비 : 한 학생당 \$10 (티셔츠, 저녁 포함)
- 문의 : 구아름 데레사 (703) 599-8869
- Please share with all high school students :
 RALLY 2023 Promo video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3년 9월 17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봉헌금	\$ 6,653.85
교무금	\$ 8,410.00
교무금(신용카드)	\$ 1,110.00
감사 헌금	\$ 4,440.00
2차 헌금	\$ 2,631.00
온라인 봉헌	\$ 2,910.00
합계	\$ 26,154.85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9월 28일(목) 오후 5:00 - 6:00
9월 29일(금) 저녁 8:00 - 9:00
10월 1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 : [24회]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
- 김대우 모세 신부

| 교황님의 9월 기도 지향 | 소외되어 살아가는 이들

사회에서 소외되어 비인간적 생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제도 안에서 홀대받지도 않고 결코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지도 않도록 기도합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